

반딧불이 생태탐사를 다녀와서

이서윤

평소에는 많은 곤충과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낮 시간에 탐사를 하러 갔었는데 오늘은 반딧불이를 관찰하기 위해 해가 질 때쯤 탐사를 시작하였다. 산에 다 같이 모여 출석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들었다. 밤에 산을 등산하는 것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어둑해지자 푸르니가 먼저 출발했고 민들레가 따라왔다. 그 뒤를 이어 부모님들이 따라오셨다. 반딧불이를 잘 발견하기 위해 어두운 산길을 랜턴을 사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반딧불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빛을 잘 내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니 수컷이었다. 어제 비가 온 탓인지 산길을 따라 들어갈수록 땅에 구덩이가 파여 있고 물이 흘러 돌을 밟고 가야 하기도 하였다. 위험한 길이 있으면 뒷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서로 손을 잡아 주며 걸어갔다. 협동심을 기르는 기분이 들었고 재미도 있었다. 작년에는 푸르니와 민들레가 떨어져 버려서 길을 따로 갔었다고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다 함께 걸어갔다. 가다 보니 거미줄에 걸린 반딧불이가 있어 거미줄에서 풀어주고 손에 올려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한 후에는 풀에 놓아주었고 또 다른 풀에 앉아 있는 반딧불이 두 마리도 발견했다. 날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암컷으로 추측되었다.

한참 걷다 보니 나무 세그루가 보였고 '정직', '우직', '강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나무를 였다.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연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속은 걸어 다니기에는 위험했지만, 자연의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어느 장소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났고 조금 더 걸으니 또 다른 냄새가 났다. 산속에서 이렇게 냄새가 다르게 나는 것이 신기했다. 중간에는 멈춰서 한 풀을 손으로 만져 보았다. 그 풀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났다. 익숙하지 않은 씁쓸한 냄새였다. 산의 경치 또한 아주 멋졌다. 밤인데도 아예 안 보이지는 않았었기에 그 경치를 볼 수 있었다. 해가 질 때쯤에는 노을을 볼 수 있었고 나무 사이로는 저 멀리 불빛이 나는 도시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멋졌던 것은 하나의 커다랗고 갈라진 나무와 별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보는 것처럼 자연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였다.

살면서 한 번도 반딧불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귀엽고 예쁜 반딧불이를 손에도 올려 보아서 기분이 좋았다. 평소에는 밤에 등산



해보고 이렇게 위험하고 아름다운 길로 다닐 기회도 적은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